

주님의 선하심에 도전함

결에

빅 콜먼(Vic Coleman)

소개

오랫동안 불편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어쩌면 힘든 직업,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 건강 문제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관계를 다루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심지어 그분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분은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휘 아래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자기 땅에 정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결국 그들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 법을 배우고,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을 잃지 않도록 지켜 줄 것이다.

이 과에서 사용된 성구들

민수기 9:15 – 23

민수기 11장

페이지 1의 9

배경

이스라엘은 11개월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약속의 땅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의 안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십계명이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는 증언의 천막 위에 구름처럼 매일 보였다. 밤에는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천막 위로 솟아올라 움직이면 백성들은 움직이며 구름을 따라갔다. 구름이 쉴 때, 이스라엘은 쉴 수 있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민수기 9:15-23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씨앗의 일종인데, 만나는 기적적으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이 씨앗으로 냄비에 요리하거나 갈아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1406년경이었다.

같은 ol' same ol'에 지쳤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폭도들"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만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비이스라엘 민족의 혼혈 집단을 가리켰습니다. 4절에서, 그 불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졌는지 주목한다. 불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퍼져 나갔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후에야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대체로 불만은 마음의 상태이며, 반드시 상황의 사실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텔레비전 광고의 목표는 당신이 외모, 햄버거 또는 자동차에 불만을 품게 만들어 새로운 것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주는 귀하의 복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돋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당신이 무언가를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만족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을 합니다.

불만의 생성은 직접적이거나 미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텔레비전 광고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일부 광고는 "좋은 삶"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젊고, 더 하얗고, 더 곧은 치아를 가진, 더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분명히 당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광고 모두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서 우리 물건을 사세요. 우리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만의 씨앗을 직접 또는 미묘하게 키워려고 시도한 일부 광고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그들 중 일부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의 숨은 동기나 질투, 탐욕(당신이 가진 것을 원했다), 또는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를 끝냈는데, 지금 끝내 후회하는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불만족스러워졌는지, 즉 자신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퍼뜨린다.

요점: 대체로 불만은 마음의 상태이며, 반드시 상황의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경험을 어떻게 낭만적으로 묘사했는지 주목한다. 우선, 노예들이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그들이 고기를 낭만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는 더더욱 그렇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무료로 먹었던 생선을 기억합니다..." (NIV) (강조는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연히 먹게 된 생선의 가격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음식을 먹여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고 애굽인들은 노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점: 불만족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거절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마련을 거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당신이 제공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모른다
- 당신은 나를 위해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않습니다
-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 다른 곳에서 내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내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신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신다. 그분은 온전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나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살짜리 아이가 서른두 살 부모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 두 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원하는지, 언제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의 인생 경험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두 살짜리 아이)와 하나님(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 하나님의 선물이나 공급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해서 다행이었습니까? 얻기 위해 싸웠던 것을 얻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당신이 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가?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쌍한 모세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백성의 태도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그는 하나님의 여러 기적을 목격하여 애굽에서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계와 신앙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또한 11개월 동안 "신음과 신음"을 경험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한계에 도달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죽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15절).

16-17절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먼저 다루시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모세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으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백성의 짐을 지는" 데 도움을 줄 70명의 장로를 얻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17절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 위에 있는 "성령을 취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삶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억제하며,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유적으로든 문자 그대로 "너를 죽게 하던" 간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요점: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야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고,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고기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만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질릴 때까지 한 달 내내 그것을 먹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20절은 그 대답을 제공합니다.

"...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을 떠났는가 하였음이니라." (NIV)

사실상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고 너희를 위해 공급한 것을 너희가 거부할 때, 너희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나의 판단을, 능력을, 신실하심을, 너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절을 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나 공급하신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당신이 제공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모른다
- 당신은 나를 위해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않습니다
-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 다른 곳에서 내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내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

어느 날 십 대 자녀가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의 유익을 위해 17년 동안 희생한 부모의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주님의 팔이 너무 짧은가?"

21-23절과 31-35절을 읽으십시오. 21절과 22절은 **가난한 모세** 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모세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주님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인지를 여쭈는 것이다. 한 달 동안.

"주님의 팔이 너무 짧은가?", 즉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을 내가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단 말인가?"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31-32절은 주님께서 고기에 대한 백성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메추라기를 가져오셨는지 알려줍니다. 32절에 언급된 "10홉런"은 약 60부셸이다. 60부셸은 약 480갤런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할당량을 메추라기를 집어 갤런 크기의 용기에 넣으면 최소 480개의 고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팔이 너무 짧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그분은 자신을 거부한 백성들을 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그분은 자신이 여전히 전능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삼.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하셨다.

위의 항목 2와 3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55:8-13에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통제권을 가진 분, 즉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없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어려운 상황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3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인내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충실하십니다.